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2026. 06. 29 | IBKS Research

Insight Monthly 7 2026



반도체

가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AI/인터넷/게임

화학/정유

유통/식자재

유틸리티

통신

자동차

2차전지

건설/부동산


제약/바이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6월	7월	8월	
IT/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전/전자부품				아모텍
IT/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선익시스템
AI/인터넷/게임				NAVER, NC
화학/정유				S-Oil, 롯데정밀화학
유통/식자재				현대백화점, BGF리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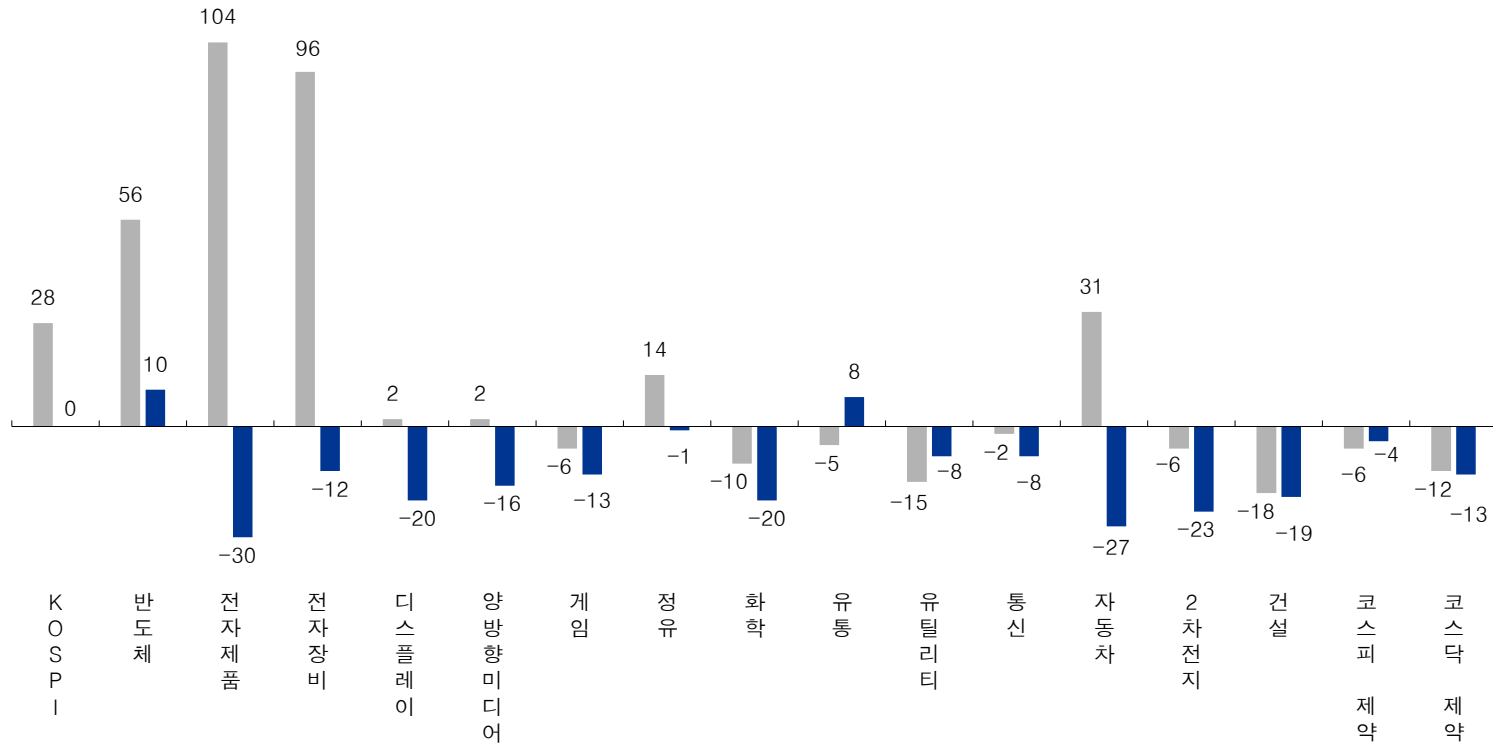
업종별 전망

업종	기상도			Top Picks
	6월	7월	8월	
유틸리티				효성중공업
통신				SK텔레콤, KT
자동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2차전지				삼성SDI, 더블유씨피
건설/부동산				삼성물산, 삼성E&A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에스티팜

업종별 수익률

(%)

■ 5월 수익률 ■ 6월 수익률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업종별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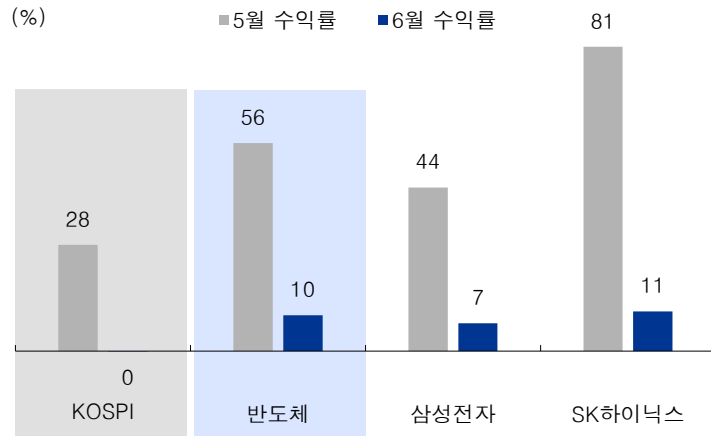


IT/반도체

6월

성과 분석

- 6월 반도체 업종지수는 9.6% 상승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9.6%p 상회
-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이 지속되며 시장 수익률을 상회함.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확대와 주주환원 및 ADR 상장 기대감 지속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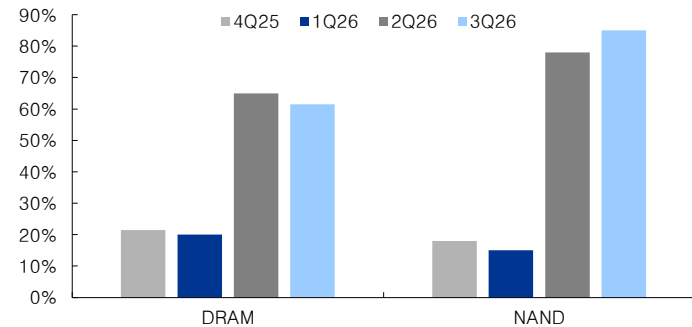
주요 이슈 & 키워드

Micron 26년 3분기 실적

- 매출액은 \$41.5B(YoY +346%, QoQ +74%), 컨센서스 \$35.6B
- DRAM ASP +62%, NAND ASP +85%
- SCA(Strategic Customer Agreement) 강조. 가격 및 수익성 안정성 강조. DRAM 물량 20%, NAND 물량의 1/3 수준. 향후 매출의 50% 상회 목표

SK하이닉스 ADR 발행을 위한 유상증자 1,779만주. 7월 10일 상장

Micron ASP 추이



자료: Micron, IBK투자증권

IT/반도체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7월 메모리 업황은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상승폭은 둔화될 것
- 2분기 DRAM 고정 가격은 Mobile이 상승 주도, Sever, PC는 40% 대로 예상. 메이커별 ASP 움직임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LTA가 변수가 될 것
- NAND 가격 상승폭이 더 높을 전망. 전 분기 대비 60%대 상승 예상
- 메모리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 연내 매분기 마다 사상 최대 실적은 갱신할 것으로 기대
- 메모리 중심 포트폴리오 유지

7월

Top Picks

삼성전자

- 26년 2분기 실적은 이전 전망 대비 높은 매출액 172조원, 영업이익 87조원으로 추정
- DS 사업부 영업이익 86조원으로 예상.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 90조원을 넘겠지만, 2분기부터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반영. 이로 인해 이전 전망 대비 개선폭은 소폭 수준일 전망
- 모바일은 원가 부담이 2분기부터 본격화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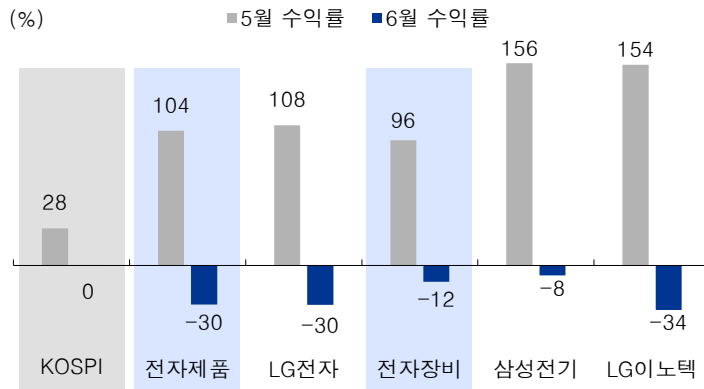
- 26년 2분기 매출액 80조원, 영업이익 62조원으로 예상
- DRAM, NAND 가격 상승 반영
- 실적 개선세 지속
- ADR 발행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Re-rating 기대

IT/가전/전자부품

6월

성과 분석

- 6월 전자제품 업종지수는 30.0%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30.0%P 하회
- 6월 전자장비 업종지수는 12.5%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2.4%P 하회
- 전자제품·장비 업종은 5월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시장 수익률을 하회함. 삼성전기는 MLCC 가격인상 기대 지속되며 낙폭 축소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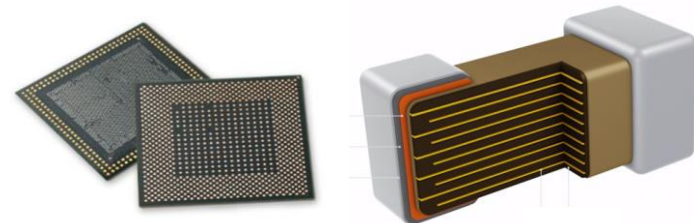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AI 관련 핵심 부품 FC-BGA, MLCC

- AI 투자 확대 수혜는 메모리에서 CPU 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기판인 FC-BGA 수요도 가파르게 성장 중. 부족한 공급을 위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생산 라인 투자가 진행 중
- MLCC도 High End 제품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High End 제품은 생산 효율성이 낮아서 물량 부족을 야기함.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

FC-BGA(좌), MLCC(우)



자료: 삼성전기, IBK투자증권

IT/가전/전자부품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7월 전자부품 업황은 개선. 서버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개선될 전망. 모바일 관련 부품은 부진할 것
- 가전 성수기. 1분기 대비로는 부진할 실적 전망. 환율 환급 효과 기대. 비용 절감 효과 반영될 것
- AI 서버 관련 기판 업체들 실적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
-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AI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이 원인
-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한 업체에 투자

7월

Top Picks

아모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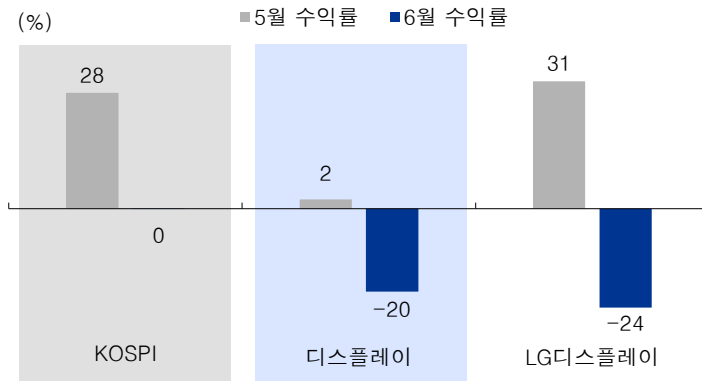
- MLCC가 성장 동력
- 전장에서 AI로 사업 영역 확대. 26년 1분기 매출 확인
- AI 주력 제품은 광네트워크
- 광 스위치 칩을 생산하는 Marvell이 대표 고객, GPU 고객과 함께 3 Phase 제품 공급 가시권 진입
- 추후 Amphenol, Lumentum으로 확장 계획
- GPU 관련 제품 개발 중
- 모터 부문 사업 확장(전장에서 ESS)
- Power 관련 MLCC 시장 진입 모색 중(Delta)

IT/디스플레이

6월

성과 분석

- 6월 디스플레이 업종 지수는 -20.4%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20.3%P 하회함
- 디스플레이 업종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구조조정에 따른 이익 전망치 하향이 맞물리면서 업종 지수 하락함
- 아이폰 신제품을 겨냥한 OLED 양산이 시작됨. 중화권 패널사의 물량 확보 실패로 금년 공급 물량은 국내 패널사가 독점할 예정임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iPhone 패널 양산 시작

- 삼성디스플레이가 금년 9월 출시 예상되는 Foldable iPhone용 패널 양산에 돌입함. 출시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으나, 양산 돌입으로 당초 타임라인에 대한 전망을 유지
- 패널에는 최신 유기재료 Set인 M160이 적용되며, 모듈에는 CoE(Color Filter on Encapsulation) 기술이 도입됨. 고부가 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익성 개선의 기회가 될 것
- 다만, \$2,500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출고 가격은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존재함

IT/디스플레이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디스플레이 업종은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 북미 Set사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하이엔드 OLED 출하량 전망치 상승
- LG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이익은 구조조정에 따른 1회성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시장 전망치 하향. 다만, 이미 선반영되어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OLED 디스플레이 업종은 Physical AI발 상승 사이클을 기대 중. 로봇, 자율주행차 등 상용 제품 등장 시 LCD 대비 OLED의 차별점인 저전력, 유연성 등의 특성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

7월

Top Picks

덕산네오룩스

- 삼성디스플레이 A6 양산 가동 시작으로 전방 고객사의 생산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
- 북미 최종 고객사의 Foldable, Notebook, Tablet 등 프리미엄 소재를 적용한 OLED 신제품 출시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선익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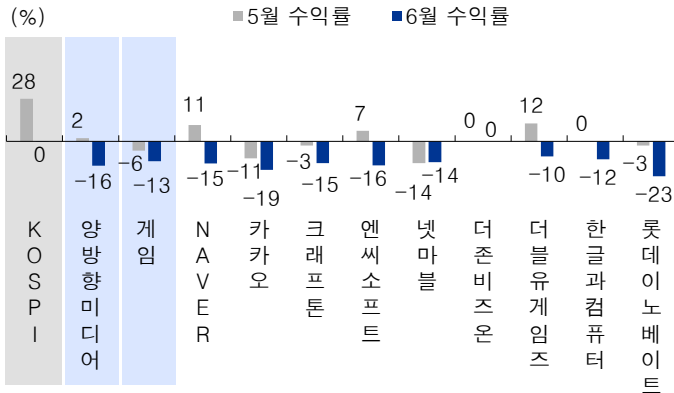
- 특정 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장비사 특징상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는 OLEDoS 및 대형 증착기 제품의 경쟁력이 실적으로 확인될 예정. 대형 증착기 매출 인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4Q26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전망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 타임라인이 다가오면서 관련 장비 매출도 기대감을 키우는 중. 내년 상반기 중 수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AI/인터넷/게임

6월

성과 분석

- 6월 기준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16.1% 기록하며 코스피 대비 -16.1%p 하회했고, 게임 지수는 -13.2%를 기록하여 코스피 대비 -13.1%p 하회함
- 양방향 미디어 지수는 AI 사업의 실질적 수익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 전월 대비 하락함
- 게임 업종은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라인업이 제한적인 가운데 하반기 모멘텀 부재 우려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엔비디아 CEO, 네이버 및 국내 게임사와 AI 관련 협업 논의

- 2026년 6월 젠슨 황 CEO는 방한 후 네이버 본사에 직접 방문했으며, 한국 및 글로벌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네이버를 지목함
- 크래프톤, NC 소프트웨어의 회동을 통해 AI 기반 게임 생태계 확장과 로보틱스 및 피지컬 AI 기술 협업 강화를 논의함

국내 인터넷/게임 업계와의 협업 내용

기업	협업 내용
네이버	- 글로벌 대규모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협력 - 한국어 특화·산업별 맞춤형 AI 서비스 경쟁 강화
크래프톤	- PUBG·인조이 등 RTX 스파크 플랫폼 최적화 - 루도 로보틱스 협업 지속
NC	- 신더시티·아이온2 등 GPU 기반 기술 협업 지속 - 피지컬 AI 차세대 기술 협업 강화

자료: 언론 보도 종합, IBK투자증권

AI/인터넷/게임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국내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쓸림이 심화되면서 내수 기반 인터넷 기업들과 모멘텀 중심의 게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됨
- NAVER가 엔비디아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글로벌 게임쇼에서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을 선보이고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사들 역시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됨
- NAVER와 NC를 탐픽으로 제시함

7월

Top Picks

NAVER

- NVIDI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누적 1GW 규모의 초대형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며, 아시아 지역 핵심 AI 인프라 공급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본격화함
- 기존 사업의 5년 후 자연 성장 매출 약 20조원에 AI 팩토리 추가 매출 20조원이 더해지며, 통합 매출 40~50조원 체제로의 구조적 외형 성장이 기대됨

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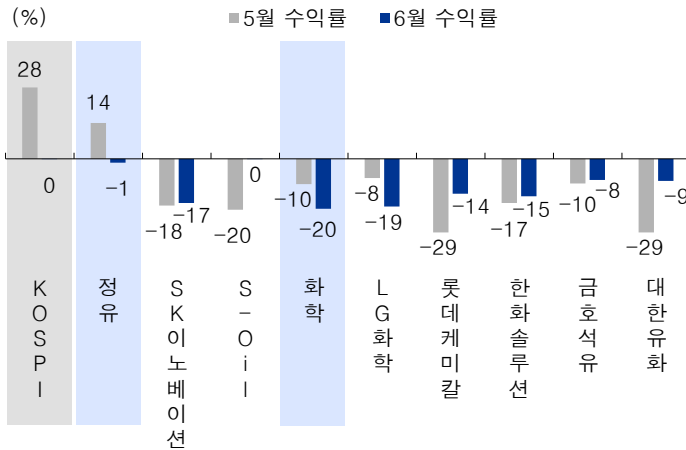
- 북미의 SGF(Summer Game Fest) 2026에서 아이온2 글로벌 출시일이 9월로 확정됨. 국내·대만 흥행 성과 및 아마존 게임즈 인력 영입을 통한 글로벌 흥행 가능성이 충분함
- 하반기 미공개 신작 1종, 1Q27 출시 예정 Horizon: Steel Frontiers, 길드워3 까지 중장기 신작 파이프라인 가시성이 높아짐. 빨라진 출시 주기와 높아진 hit ratio를 감안할 때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음

화학/정유

6월

성과 분석

- 6월 정유 업종지수는 -1.4%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4%p 하회.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영향에 기인
- 6월 화학 업종지수는 -19.8%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19.8%p 하회. 수요 둔화에 따른 가격 약세 전환 때문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급락

-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고 공급 과잉 우려가 겹치면서 브렌트 유가가 배럴당 \$73선까지 급락
- 이에 국내 정유/화학 업계는 재고 손실 우려와 함께 마진 방어를 위한 조치 실시 계획

정유 4사 가격 담합 의혹

- 석유 제품 가격 폭등과 관련해 국내 대형 정유 4사를 향한 담합 의혹 조사가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사법 리스크와 사회적 시선에 대한 긴장감 고조
-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과거 담합 사례를 뛰어넘는 대규모 과징금 폭탄 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화학/정유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7월 화학 업종은 부정적인 래깅 효과 제거로 6월 대비 실적 흐름 개선 전망. 합성고무/라텍스 등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
- 7월 정유 업종은 높은 등/경유 스프레드에 따른 정제마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 다만 유가 안정화로 인한 재고 관련 손실 확대 예상

7월

Top Picks

S-Oil

- 총 9.3조원 규모의 사힌 프로젝트는 올해 6월 기계적 완공 및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TC2C 공정을 도입하여 기존 공정 대비 화학 원료 수율을 3~4배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20~30% 절감할 것으로 예상. 또한 기존 정유시설의 중질유 및 부산물을 보조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

롯데정밀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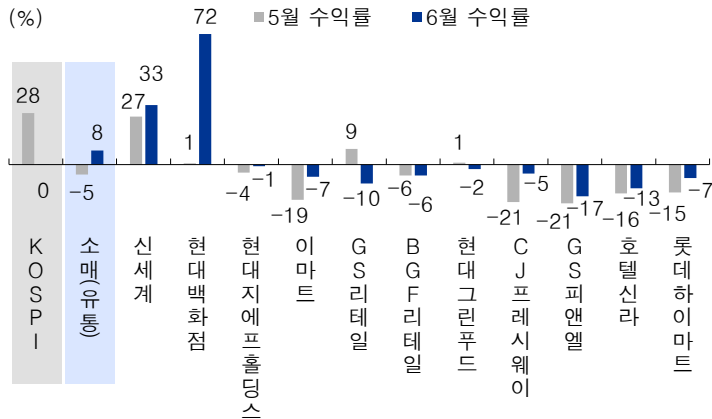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인한 가스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가격 급등세 기록. 동사 암모니아 사업의 판가 인상에 기여할 전망
-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유 상품/현금을 고려한 업종 내 차별적인 재무 안정성 지속 전망

유통/식자재

6월

성과 분석

- 6월 유통 업종 지수는 7.9% 상승했으며, 코스피 수익률을 약 7.9P 상회
- 5월 상승장에서 코스피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 반면, 6월의 경우 인바운드 호조,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럭셔리 소비 증가하며 백화점 업종을 중심으로 차별적인 상승률 달성에 따라 코스피 수익률 상회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5월 외국인 국내 카드 소비 지출액 2조 원 돌파

- 26년 5월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 2조 1,222억 원 (전년동월대비 +67.1%)
- 특히, 중국인 카드 소비 전년동월대비 +214.0%, 1~5월 누적 증감률 152.5%
- 중국인 중심의 인바운드 확대와 고소비층의 럭셔리 소비로 백화점 89.2%, 면세점 87.6% 등 매출 성장

홈플러스 전국 37개 점포 폐점

- 6월 4일, 홈플러스는 5월 10일부터 잠정 휴업 중이던 37개 점포를 영구 폐점하기로 결정
- 상품 공급 차질과 매출 급감이 폐점 배경으로 거론되며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매출 기여도가 낮은 점포 37개 매장 폐점
- 홈플러스 폐점에 따라 기존 수요가 인근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 확대. 이에 따라 경쟁사 반사이익 기대

유통/식자재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자산소득 증가에 따른 백화점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명품 소비 증가 외에도 전 품목군 매출이 확대되며 마진 믹스 효과 개선 기대
- 중국인 중심의 방한 외국인 수요 확대로 국내 호텔 업체 실적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국내 관광이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내·외국인의 여행 수요 확대 예상. 이에 따라 서울 이외 주요 지방권 호텔 또한 실적 개선 기대
- 인바운드 수요 증가 및 아웃바운드 감소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증가로 편의점 업체 실적 성장 기대

7월

Top Picks

현대백화점

- 2분기 연결기준 순매출액: 1조 1,953억 원(YoY +10.6%), 영업이익 1,121억 원(YoY +29.0%) 추정
- 1) 백화점 사업부 기존점 성장률 10% 중반 예상, 전 품목군의 고른 성장, 2) 외국인 인바운드 효과로 시내면세점 수익성 개선, 공항점 DF2 운영에 따른 이익 증가 등
- 지누스 효율화 작업 마무리, 백화점 성장세 및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 확대 효과, 더현대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강화

BGF리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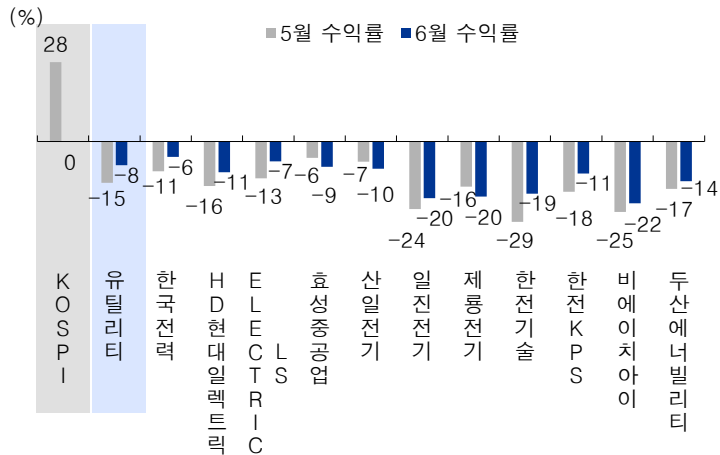
-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조 4,401억 원(YoY +6.5%), 영업이익 796억 원(YoY +14.6%) 추정
- 1) 내·외국인 트래픽 증가, 2) 담배 비중 감소에 따른 마진을 개선, 3) 점포 스크랩에 따른 효율성 개선 기반 2분기 기존점 성장률 3.7% 수준으로 1분기 상회 전망 등
- 방한 수요 추세 지속, 상품군 확대 기반 트래픽 상승 등 향후 성장 동력 작용 판단

유틸리티

6월

성과 분석

- 6월 유틸리티 업종은 8.4%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8.4%P 하회함.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력기기와 원전 업종 전반의 약세가 지속됨
-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LS ELECTRIC,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대표주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KPS, 한전기술 등 원전 관련주 역시 약세를 나타냄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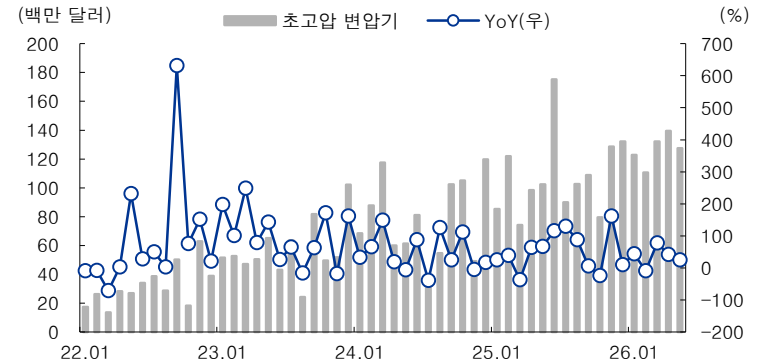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초고압 변압기 수요 정점은 아직

- 4~5월 누적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은 2억 6,682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9% 증가함. 1분기 효성중공업 신규 수주는 4.2조원(+108% YoY)으로 큰 폭 증가했으며, HD현대일렉트릭(2.5조원, +35%)과 LS ELECTRIC(1.1조원, +27%)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 북미 중심의 전력기기 수요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판단

초고압 변압기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IBK투자증권
 주: 용량이 10,000KVA 이상인 초고압 변압기

유틸리티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전력기기 업종은 4월 급등 이후 5~6월 조정을 거침. 현재 12개월 선형 PER 기준 밸류에이션이 5월 초 대비 20~30% 낮아진 만큼,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주가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함. 효성중공업은 미국 최상위 전력망인 765kV급 변압기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 고부가 수주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 LS ELECTRIC 역시 고객사 다변화를 바탕으로 미국 데이터센터향 배전반 및 전력기기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DC(직류) 기술력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800V DC 데이터센터 생태계 진입 가능성도 유효함
-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10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75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원전 관련주에 대한 투심도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

7월

Top Picks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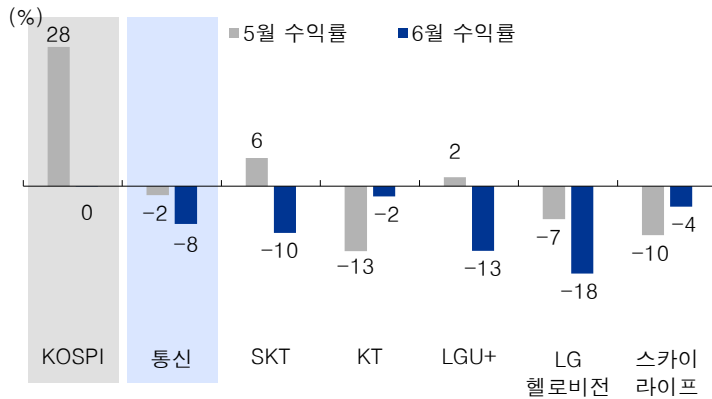
-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091억원(+25.2% YoY), 영업이익은 3,245억원(+97.6% YoY)으로 전망됨
- 중공업 부문은 1분기 이연 물량(매출 약 1,000억원, 영업이익 약 400억원 규모)이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9%,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 부문 역시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업이익 22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2Q25: 42억원 적자) 할 전망이다
- 차세대 전력기기인 고체변압기(SST)는 단순 전압 변환을 넘어 전력 흐름과 품질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내년 이후 점진적인 성과 가시화가 기대됨

통신

6월

성과 분석

- 6월 통신 업종은 7.7%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7.7%p 하회함.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내수 방어주인 통신 업종의 상대적 매력력이 낮아진 영향으로 판단됨
- 종목별로는 5월 낙폭이 컸던 KT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3%, 10% 하락함. 다만 실적 측면에서 우려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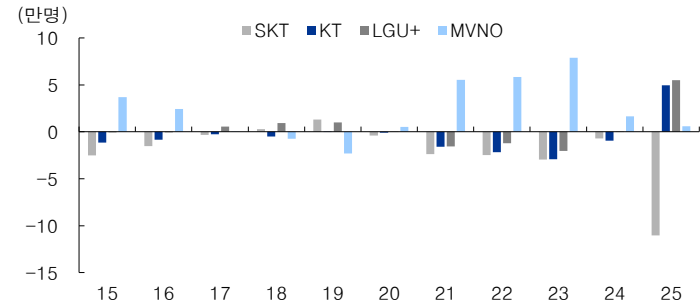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6월 비수기에도 통신 3사 번호이동 증가

- 삼성전자가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감사제를 시행하면서 6월 통신사 신규 개통 수요가 증가. 통상 6월은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비수기이나, 감사제 시행 직후 통신 3사 신규 개통 건수는 7만 7,616건으로 전 주 대비 17% 증가함. 6월 1~14일 번호이동 건수는 MVNO가 6,811명 순감한 반면, SK텔레콤 5,175명, KT 1,134명, LG유플러스 502명 순증함. 4주간 진행되는 만큼 가입자 증가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연도별 6월 번호이동자 증감 추이



자료: KTOA, IBK투자증권

통신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5~6월 통신 업종 주가 흐름은 시장 대비 부진했지만, 실적 전망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7월에도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강세가 지속될 경우,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업종 전반적으로는 보안 사고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안정적인 경쟁 환경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영향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둔화됐던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에 따라 실적 개선 폭이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7월

Top Picks

SK텔레콤

- 실적은 2분기부터 보다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날 전망. 지난해 2분기에는 신규 영업정지와 가입자 이탈 영향, 전 가입자 대상 유심 교체 비용 등이 반영돼 실적 기저가 크게 낮아진 바 있음. 또한 3~4분기에는 요금 할인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고객 감사 패키지 비용이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분기 편안한 이익 회복 흐름이 예상됨
- 1분기에 배당(주당 830원)이 재개됐으며, 올해 실적이 해킹 사고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연간 배당금 역시 2024년 수준(3,540원)으로 정상화될 가능성 높아 보임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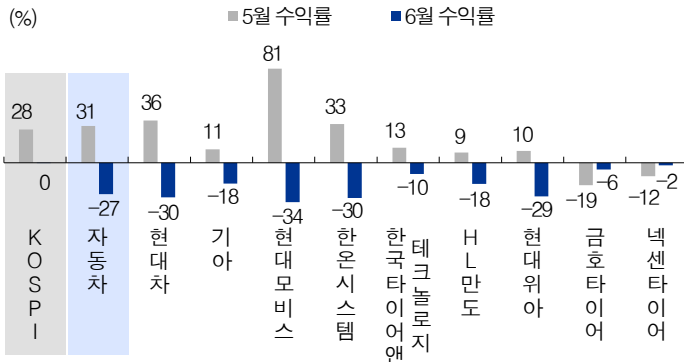
- 1분기에 이어 2~3분기에도 실적 감소가 예상되나, 연간 최소 주당 배당금 또한 전년과 같은 2,400원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환원 정책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자동차

6월

성과 분석

- 6월 자동차 업종은 -26.7%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26.7%P 하회
- 6월 8일, 젠슨황의 현대차그룹 본사 방문. 정의선 회장과 자율주행, 로봇틱스, AI 기반 제조 시스템, 새만금 AI 밸리 협력 등 논의하며 엔비디아와 협력 확대 가능성 부각
- 현대차의 소프트뱅크로부터 BD 보유 지분 9.65% 콜옵션 행사 가능성 소식. 이를 통해 BD를 완전 자회사화 한 후, 나스닥 상장 추진 기대감 유효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아틀라스도입' 현대차그룹, 공장 자동화·로봇부품 조직 신설

- 현대차그룹, SDF 전담 조직 신설. SDF는 AI가 생산·품질·물류 등 공장 전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 제어하는 공장임
-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 구축 및 현대·기아차 생산 현장에 2.5만대 이상 도입 계획. 2028년부터 HMGMA에서 부품 분류 서열 작업 및 2030년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 확대 예정

BD 로봇틱스 벨류체인 Key



자료: BD, IBK투자증권

자동차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관세율 인하로 인해 현대차와 기아 각각 관세 영향이 2.1조원, 1.6조원 감소하여 합산 3.7조원이 감소할 예정
-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1) AVP 본부 필두로 자체 내재화 개발과, 2)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R1 자율주행 오픈소스 플랫폼 활용 검토 등 2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
- 미국 로보틱스 핵심시설은 3개로 1) 생산: RA(Robotics America), 2) 훈련 RMCA(로봇메타응용센터), 3) 부품: Actuator Manufacturing
- 28년부터 로봇 3만대, 액추에이터 35만개 CAPA 보유 예정
- SDV,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로보틱스는 각각 독립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는 변화이며 한국 자동차 업종을 보는 시각 역시 경기민감 제조업에서 Physical AI의 초기 상용화 플랫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7월

Top Picks

현대차

-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연 3만대 규모로 양산하고, 구독형(RaaS) 모델을 통해 제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Physical AI 산업 적용 본격화 전략을 발표
-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거점화 발표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GPU Blackwell 5만장의 활용 방안
- 웨이모와 아이오닉5 협업, Motional 등 2026년부터 본격화 될 로보택시 시장 기대감 유효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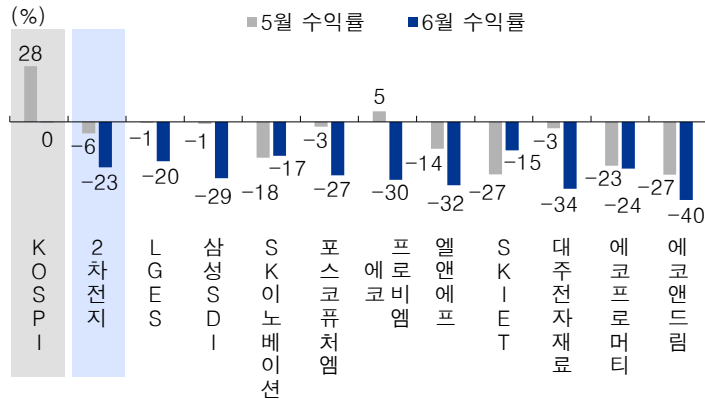
-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핵심 액추에이터 공급,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제작 비용의 약 50%를 차지
- 향후 휴머노이드의 가격을 대당 1억원, 공급량을 3만대 (아틀라스 2028년 양산 계획)라고 가정했을 때, 2028년 부터 휴머노이드 향으로 발생 가능한 매출액은 연 1.5조원 수준

2차전지

6월

성과 분석

- 6월 2차전지 업종은 -23.3% 하락. 코스피 수익률 대비 -23.2%p 하회
- EU IAA 초안 공개에 따라 전기차 및 ESS 배터리 역내 생산 요건 강화로 K배터리사 수주 기회 확대 기대
- LG에너지솔루션은 DTE 에너지와 16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B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영향 확대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글로벌 2차전지 Supply Chain Peer Value

- YTD 달러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1.1% 하락, CATL은 +8.8% 상승
- LG에너지솔루션의 EV/EBITDA는 26년 20.7배, 27년 14.4배, 28년 11.3배. CATL 대비 각 년도 프리미엄은 26년 -30.3%, 27년 +51.6%, 28년 +50.7% 수준

업체명	PER (배)			EV/EBITDA (배)		
	26F	27F	28F	26F	27F	28F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608.0	49.4	27.3	20.7	14.4	11.3
삼성SDI	115.7	26.9	18.3	11.2	13.4	10.3
SK이노베이션	15.0	19.4	19.7	11.2	8.9	8.2
CATL	18.9	15.3	12.6	29.7	9.5	7.5
Panasonic	42.0	23.0	18.8	15.4	11.8	9.9
BYD	14.8	11.7	9.8	10.7	4.5	3.4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275.3	146.1	64.9	55.3	42.6	32.2
에코프로비엠	351.2	148.2	83.2	52.0	46.8	34.8
엘앤에프	1490.8	51.3	29.7	136.3	20.5	15.2
Umicore	12.8	12.0	10.9	7.0	6.5	5.9
Sumitomo Metal	14.9	11.5	11.0	10.5	13.1	13.8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 6월 24일 기준

2차전지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2026년 LGES, SDI 등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액 가이드는 YoY +15~20% 증가 제시, 양극재 기업들은 YoY +10~20% 증가를 제시함
- 23년 상반기 이후 이어온 부진한 배터리 업황은 26년에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올해가 저점임을 확신
- 유럽 IAA(산업 가속화법) 초안이 3월 공개되었으며, 중국을 저격한 법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전망됨으로 유럽 현지 또는 한국 생산 공장이 있는 소재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검색량 79% 증가, 5월 유럽 BEV 판매량은 YoY +42.9% 급등하며 관심이 판매량으로 이어지고 있음

7월

Top Picks

삼성SDI

- 북미향 ESS의 경우 2028년 물량까지 전량 수주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 글로벌 ESS CAPA는 26년 기준 60GWh(중국 7GWh, 한국 1GWh, 미국 49GWh, 폴란드 3GWh)
-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고성능 각형 배터리 공급계약 체결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

더블유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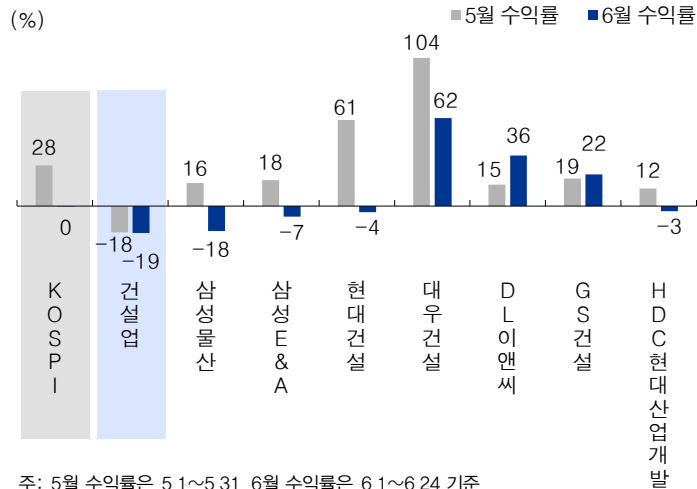
- 2026년 연간 판매량 가이드스 YoY +100% 이상을 제시하며 평균 가동률도 25년 40% 수준에서, 26년 60~7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제시
- 북미 ESS향 중심으로 분리막 출하량이 증가하며, 올해 분리막 어플리케이션별 매출 비중은 ESS 50%, EV 30%, 소형전지 20%로, ESS 위주의 높은 성장 기대

건설/부동산

6월

성과 분석

- 6월 건설 업종 수익률은 -18.8%를 기록, 코스피 수익률 대비 18.7%p 하회
- 연초 이후 원전, 부동산 정책 기대감, PF 리스크 완화 기대를 선반영하며 업종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던 만큼, 6월에는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반도체 호황에 따른 비주택(반도체) 투자 증가

- 삼성전자 평택 P5 팹2 착공 준비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클린룸 조기 오픈 계획이 확인되며, 반도체 투자는 건설사 비주택 부문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재부각
- 주택 부문 회복 가시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반도체 팹·클린룸·유틸리티 등 캡티브 물량을 확보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 방어력을 보유
- 다만 수혜는 업종 전반보다 반도체 공장 수행 경험, 계열사 물량, 클린룸·유틸리티 대응 역량을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차별화될 전망

건설/부동산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6월 조정은 업종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연초 이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 하반기에는 반도체 투자 재개, 원전 수주 타임라인 구체화 여부가 업종 반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단기적으로는 단일 산업 중 현금 유입이 가장 가파른 반도체 업종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건설사에 주목. 반도체 팹, 클린룸, 유틸리티 등 비주택 물량은 주택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실적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특히 캡티브 물량과 수행 레퍼런스를 보유한 업체 중심으로 하반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7월

Top Picks

삼성물산

- 삼성물산의 투자포인트는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핵심 계열사 지분가치 재평가와 NAV 할인율 축소 가능성에 있음
- 특히 2026~2028년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를 주주에게 환원하기로 하면서, 보유 지분의 현금 흐름이 배당 여력으로 연결되는 구조 강화 전망

삼성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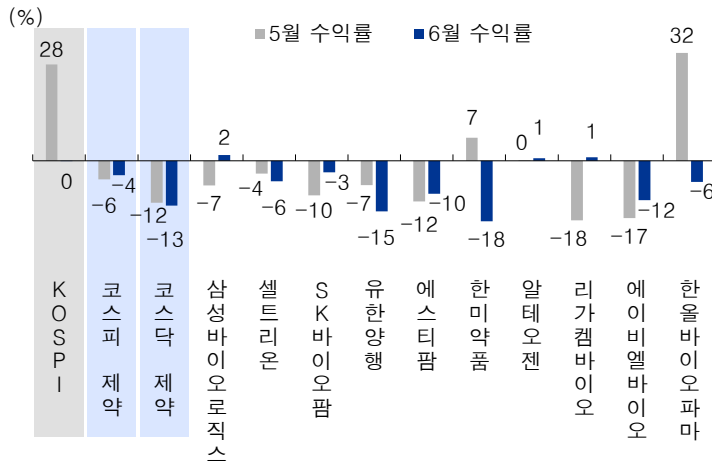
- 삼성E&A는 반도체·비주택 투자 확대에 따른 캡티브 물량뿐 아니라, 중동·아시아 화공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EPC 수행 역량이 재부각될 수 있음
- 특히 화공 부문은 에너지 안보 강화, LNG·가스처리·정유·석유화학 설비 투자 재개 국면에서 수주 옵션이 확대될 수 있어 하반기 매력도가 높아질 전망

제약/바이오

6월

성과 분석

- 6월 코스피 제약 지수는 -4.3% 하락하며, 코스피 수익률을 4.3%P 하회함. 코스닥 제약 지수는 -13.3% 하락하며 코스닥 수익률을 2.1%P 상회함
- 5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인상 우려가 부각되며 업종 전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금리 동결과 국채금리 하락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주: 5월 수익률은 5.1~5.31, 6월 수익률은 6.1~6.24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IBK투자증권

6월

주요 이슈 & 키워드

한미약품·오스코텍, 총 2.9조 원 기술이전 성과

- 6월 1일 한미약품과 오스코텍이 각각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총 2조 9,000억 원 규모의 성과 달성. 한미약품은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을 일라이 릴리에 기술이전했으며, 해당 후보물질은 2027년 12월 임상 2상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
- 오스코텍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미국 희귀질환 치료제 전문 제약사 아지오스에 기술 수출했으며, 아지오스는 2028년 상반기 면역혈소판감소증 적응증으로 임상 3상을 개시할 예정

큐라클 망막질환 파트너사 시리즈A 투자유치 완료

- 비상장 기업 메멘토 메디신은 포비온, RA캐피탈, 아베고가 공동 주도하고 사노피 벤처스 등이 참여한 9,3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발표
- 주력 파이프라인은 큐라클에서 도입한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2027년 임상 단계 진입할 예정

제약/바이오

7월

전망 및 투자전략

6월



7월



8월



- 6월 22~25일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USA가 개최되는 가운데, 정맥주사(IV) 치료제를 피하주사(SC)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알테오젠 등을 중심으로 추가 글로벌 파트너십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해, 수출 비중이 높은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
- 7월에는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FDA 허가 여부와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미국 임상 3상 주요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7월

Top Picks

한올바이오파마

- 5/21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아이메로프루바트(IMVT-1402)'의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서 의미 있는 중간 데이터 발표 이후 파트너사 이뮤노반트의 주가는 상승한 반면, 동사 주가는 하락한 상황. 향후 관련 모멘텀 부각될 경우 주가 괴리는 축소될 것으로 기대
- 2026년 하반기에는 '아이메로프루바트'의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최종 데이터와 만성 피부질환인 피부 홍반 루푸스의 개념입증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에스티팜

- 2026년 2분기 실적에는 1분기에서 이연된 RNA 치료제 원료의약품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또한 동사의 수출 비중이 약 94%로 높아 원/달러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4.01~2026.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9	92.7
Trading Buy (중립)	10	6.7
중립	1	0.7
매도	0	0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에너지/소재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i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hoonoh@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915-5464	ckjins@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코스닥리서치센터

이건재	연구위원	코스닥 리서치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조은애	연구위원	코스닥 리서치	6915-5689	goodkid@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미드·스몰캡	6915-5473	kmg@ibks.com
김혜빈	연구원	로봇	6915-5669	hyebhinkim@ibks.com
유창근	연구원	헬스케어	6915-5686	uccck0726@ibks.com
유창근	연구원	코스닥 리서치	6915-5655	changsic12@ibks.com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IBKS Family Office	02) 536-4070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